

국회의원(김재섭) 징계안

의안 번호	18196
----------	-------

요구연월일 : 2026. 4. 8.

요 구 자 : 천준호 · 이용우 · 박홍배
이기현 · 백승아 · 문금주
박용갑 · 김한규 · 박균택
김문수 · 송재봉 · 김성희
이주희 · 오세희 · 채현일
김현정 · 김동아 · 조인철
이정현 · 이해식 · 전용기
김남근 · 안태준 · 이재관
전진숙 의원(25인)

주 문

국회의원(김재섭)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재섭은 2026년 3월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에서 “정원오 후보는 구청장 재임 중에 한 여성직원과 해외출장을 다녀와”, “해외출장 이후 해당 여직원은 성동구청에서 더 높은 급수의 직위로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인사이동”, “정원오 구청장은 2023년 한 여성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출장” 등을 발언하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상대로 여성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출장 스캔들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승진 거래 의혹과 성별 조작 의혹을 제기하였음.

다. 휴양지(칸쿤) 출장으로 단정 지은 기자회견 내용과는 달리 실제 출장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와 메리다, 미국 오스틴에서 주요 일정이 이루어졌음. 경유지였던 칸쿤의 휴양지 이미지를 이용해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 국민의 선택권을 호도하려는 행위임. 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을 위반한 것임.

라. 국회의원 김재섭의 발언은 성차별적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를 외면한 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며 성차별 근절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배치되는 망언임.

마. 국회의원 김재섭은 ‘휴양지’, ‘여성동반 출장’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해서 출장 문건을 공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성씨와 직책을 표기하는 등 신원이 특정되게 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의 사진이 빠르게 유포되어 신상이 노출되고, 심지어 신상 공격을 받고 있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바. 또한 국회의원 김재섭은 2026년 4월 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중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에게 “미스터 칸쿤”이라고 공공연히 조롱하고 허위사실을 재차 발언하는 등 해외출장의 진상이 밝혀졌음에도 일말의 반성 없이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하는 망언을 지속 반복했음.

사. 이뿐만 아니라 2026년 2월 25일 본인 페이스북에 정원오 예비후보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는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 정치 공세를 한 전례마저 있음.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행위임.

아. 이에 국회의원 김재섭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 제311조(모욕),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

사실공표죄) 제2항,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에 위반 소지가 있는 바,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